

외현적/암묵적 의존성과 우울과의 관계*

박 선 희

오 경 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의존성은 우울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성격 특질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으로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암묵적 의존성이 혼재변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인지적 연합 패러다임인 SC-IAT로 암묵적 의존성을 함께 측정하여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는 성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의존성을 방어적으로 보고하는 데 반해 의존성을 암묵적으로 측정할 시에는 이러한 보고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성별을 주요한 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을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우울하였으며, 높은 외현적 의존성을 보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암묵적 의존성이 높지 않으면 우울감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예상과는 달리 외현적 의존성만이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 주요 변인이었으며 암묵적 의존성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비록 가설의 일부만이 지지되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묵적 의존성이 지니는 잠재적인 가치를 보여주며 향후 의존성을 비롯한 다양한 성격적 특성을 측정함에 있어 암묵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측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우울, IAT, SC-IAT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2013)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오경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구분야: 임상심리학

Tel: 070-4152-9327, E-mail: kjoh@yonsei.ac.kr

서론

의존성과 우울

의존성(dependency)이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가깝게 지내고자 하는 욕구를 중심으로 하는 복잡한 사고, 믿음, 감정을 뜻한다(Hirschfeld, Klerman, Chodoff, Korchin, & Barrett, 1976). Blatt(1974)은 의존성을 “상대와의 직접적인 신체적, 감각적, 욕구 충족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구”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존성은 자살 시도나,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를 비롯하여 아동 학대나 소아 기호증(dedophilia) 등, 여러 정신 병리 및 사회 문제와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Bornstein, 2001, 2005, 2012; Hirschfeld et al., 1977; Perry & Körner, 2011).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의존성은 자기 비난(self-criticism)과 더불어 우울에 취약한 대표적인 성격 특질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방대하게 진행되어 왔다(Beck, 1979; Beck, 1983; Blatt & Zuroff, 1992).

그러나 의존성이 우울에 취약한 성격적 특질이라는 많은 이론적/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의존적일수록 우울하다는 사실은 일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Campbell, Whiffen과 Kallos(1994)의 연구와 Whiffen과 Sassequille(1991)의 연구에서는 모두 연구 대상을 비환자 집단으로 동일하게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우울의 상관관계가 각각 .19, .58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Blatt(1982)의 연구와 Brown과 Silberschatz(1989)의 연구에서는 모두 연구 대상을 임상 집단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가 .20과 .62로 차이가 나타났다. Franche와 Dobson(1992)의 연구와 Klein 등(1988)의 연구는 모두 동일한 의존성 척도인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DEQ; Blatt, D'Afflitti, & Quinlan, 1976)를 사용하여 우울 임상 집단 환자들의 의존성을 측정하였으나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는 안정적인 특성인가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스트레스가 의존성과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ammen, Ellicott, Gitlin, & Jamison, 1989; Hammen, Marks, Mayol, & DeMayo, 1985)와 그렇지 않다는 상반된 연구(Hammen, Ellicott, & Gitlin, 1992; Mongrain & Zuroff, 1994)도 존재하며,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Boyce, Boyce, & Parker, 1991; Klein et al., 1988). 이러한 연구들은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일관적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비일관성의 원인이 표집 집단의 이질적 특성이나 사용된 척도/의존성 개념의 차이, 스트레스 사건과의 상호작용 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바, 비일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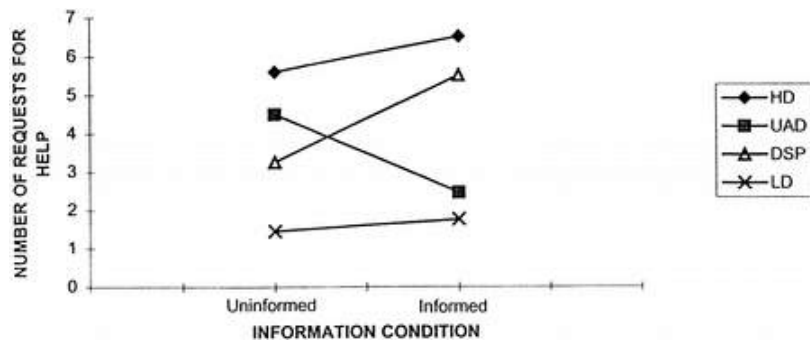
혼재변인으로서의 암묵적 의존성

한편, 많은 학자들은 성격적 특질에는 외현적인 영역과 암묵적인 영역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McClelland, Koestner와 Weinberger(1989)는 동기 및 욕구에는 외현적/자기 귀인적(explicit/self-attributed) 영역과 암묵적(implicit) 영역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두 영역을 구분하였다. 그는 자기보고로 측정되는 외현적 욕구는 사회적 규범을 반영하고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보상 때문에 나타나는 데 반해, 암묵적 동기는 사회적/인지적인 여과가 되지 않은 자동적인 동기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McClelland 등(1989)의 이론을 기반으로 Bornstein(1998)은 의존성을 외현적 의존성(explicit dependency)과 암묵적 의존성(implicit dependency)으로 구분하였다. Bornstein에 의하면 외현적 의존성은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며 개인이 스스로의 성격적 특질로 인정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의존성이다. 반면 그는 암묵적 의존성은 개인의 인식 밖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의존성이며, 자기보고식 방식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Bornstein은 지속적인 실험 연구를 통하여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을 함께 측정하고 두 의존성이 각기 다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Bornstein, 1998, 2002; Bornstein, Bowers, & Robinson, 1995). 예로, Bornstein(1998)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를 이용한 외현적 의존성과 투사검사를 통한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한 뒤 실험 참가자들이 어려운 알파벳 단어 과제를 풀도록 하였다. 과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은 동석한 실험자에게 원하는 만큼 질문해도 된다고 하였으며, 이 때 참가자가 질문을 하는 도움 행동을 몇 번이나 나타냈는가를 의존 행동으로 규정하고 그 횟수를 종속변인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한 그룹에게는 본 실험이 의존성 및 도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고(informed 조건), 다른 그룹에게는 본 실험이 대학생들의 과제 해결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uninformed 조건). Bornstein은 참가자들의 외현적, 암묵적 의존성 수준에 따라 집단을 그림 1과 같이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른 도움 행동(의존 행동)의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은 실험 참가자들(HD 그룹)은 실험이 의존성에 관한 것이라는 정보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높은 의존적 행동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현적 의존성만 높고 암묵적 의존성은 낮은 참가자들(DSP 그룹)은 실험이 의존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만 높은 의존적 행동을 보였으며, 실험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낮은 의존적 행동을 나타냈다. 반대로 암묵적 의존성만 높고 외현적 의존성은 낮은 참가자들(UAD 그룹)은 실험이 의존성에 대한 것이라는 정보가 있을 때는 낮은 행동을 나타냈으나 본 실험이 의존성 측정에 대한 것이라는 정보가 없을 때는 높은 의존적 행동을 나타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외현적 의존성은 스스로가 의존적이라고 지각하고 자신의 의존성을 표현할 의사가 있는 의존성을 뜻하는 데 반해 암묵적 의존성은 통제할 수 없는 자동적인 의존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외현적

		외현적 의존성 검사 점수	
		저(LOW)	고(HIGH)
암묵적 의존성 검사 점수	저 (LOW)	낮은 암묵적 의존성 낮은 외현적 의존성 낮은 의존성 (Low Dependency)	낮은 암묵적 의존성 높은 외현적 의존성 자기 제시적 의존성 (Dependent Self-Presentation)
	고 (HIGH)	높은 암묵적 의존성 낮은 외현적 의존성 감추어진 의존성 (Unacknowledged Dependency)	높은 암묵적 의존성 높은 외현적 의존성 높은 의존성 (High Dependency)

(그림 1) 외현적/암묵적 의존성을 나타내는 자기보고 및 투사 검사 점수: 4개의 카테고리 모델(Bronstein, 1998)



(그림 2) 의존성을 나타내는 도움행동과 실험상황 정보 제공 조건. HD = high dependency; UAD = unacknowledged dependency; DSP = dependent self-presentation; LD = low dependency(Bronstein, 1998).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의 한계

그러나 이러한 Bornstein의 암묵적 의존성에 대한 연구들은 의존성과 우울의 비일관적 관계를 탐색하는 데 까지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보고식 방법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보

고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스스로의 성격적 특질로 인정하고 겉으로 표현할 의사가 있는 외현적 의존성뿐이다. 사실, 개인이 자신의 성격적 특질을 정확하게 보고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성격 측정 연구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할 때 의도적/비의도적 보고 편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nstein, 1998; Greenwald et al., 2002; Greenwald & Farnham, 2000; McClelland et al., 1989; Mischel, 1972; Wilson, Lindsey, & Schooler, 2000). 특히, 자기보고식 설문에서 응답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응답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경향성인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은 성격의 정확한 측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주목 받아 왔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관련 척도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Reynolds, 1982; Stöber, 2001) 그 타당도와 실질적 유용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orkenau & Ostendorf, 1992; McCrae & Costa, 1983).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보고로 의존성을 측정할 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irschfeld et al., 1977; Leak & Parsons, 2001; Robins et al., 1994; Zuroff, Moskowitz, Wielgus, Powers, & Franko, 1983), 특히 의존성을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할 시에 남성은 여성보다 더 방어적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rnstein & McLeod, 2016).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의존성과 같은 성격 특질의 암묵적 영역의 존재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정 방법이 시도되었다. 초기에는 위에서 제시된 Bornstein(1998)이 실험에서 사용하기도 한 검사인 로르샤하 잉크 반점 검사(Rorschach, 1942)나 주제 통각 검사(TAT; Murray, 1943)와 같은 투사 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투사 검사를 사용한 암묵적 측정 방법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채점방식과 낮은 신뢰도 및 빈약한 타당도 등(박영숙, 1994), 심리 측정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타당하지 못하다고 평가되어 왔다(Entwistle, 1972).

암묵적 연합 측정 방법

그러나 암묵적 영역의 측정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지 영역에서도 과거에는 검증이 어려웠던 개념을 검증하고자 그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묵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 가운데 객관적인 심리 측정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성격적 특질의 암묵적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암묵적 연합 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가 주목 받고 있다. IAT는 컴퓨터 스크린에 제시되는 단어를 보고 키보드의 키로 반응하여 연합된 두 단어의 상대적인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으로, 두 가지 개념이 강하게 연합되어 있다면 보다 빠르게 반응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꽃과 벌레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꽃과 벌레를 각각 긍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와 같은 키로 분류하는 과제를 사용한다. 꽃에 대해 좋

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꽃과 긍정적인 단어를 같은 키로 반응했을 때(꽃+긍정단어) 꽃과 부정적인 단어를 같은 키로 반응했을 때(꽃+부정단어) 보다 빨리 반응할 것이다.

본래 IAT는 인종이나 성별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IAT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다 (Greenwald & Nosek, 2001). 처음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IAT는 이후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불안, 외향성과 같은 성격적 특질 측정에도 적용되고 있으며(Egloff & Schmukle, 2002; Greenwald & Farnham, 2000), 국내에서도 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자존감을 측정한 연구가 존재한다(박승진, 이훈진, 최혜라, 2011).

그러나 IAT 개발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바와 같이(Greenwald & Farnham, 2000), IAT는 측정하려는 대상이 “남성-여성”, “흑인-백인”과 같이 대조적인 쌍을 이루지 않을 경우 사용에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예: 특정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측정하려 할 때 대통령과 쌍을 이루는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IAT로 개인의 성격 특질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측정 대상인 “나”의 대조적인 쌍이 없기 때문에 “나-타인”이나 “나-나 아님”과 같이 인위적인 연합 대상을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Karpinski와 Steinman(2006)은 하나의 대상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IAT를 변형하여 SC-IAT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인”이나 “특정 제품”, 혹은 “나”와 같이 하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나 성격 특질을 암묵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SC-IAT는 일부 연구에서 IAT 보다 의도적인 보고 편향을 더 잘 탐지해 내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Karpinski & Steinman, 2006).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로 자기보고식 측정 방법만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동안의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암묵적 의존성이 혼재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으로 외현적 의존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암묵적 연합 방법인 SC-IAT로 암묵적 의존성을 함께 측정하여 암묵적 의존성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우울을 예측함에 있어서 암묵적 의존성이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의존성을 보고할 때 사회적 바람직성이 영향을 미치며 (Hirschfeld et al., 1977; Leak & Parsons, 2001; Robins et al., 1994; Zuroff et al., 1983), 남성의 경우 의존성을 보고함에 있어서 여성보다 더 방어적이라는 점을 바탕으로(Bornstein & McLeod, 2016) 성별을 또 하나의 변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암묵적 의존성의 경우 의식적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SC-IAT로 측정 시 남자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의존성을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하는 보고 편향의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암묵적 의존성은

외현적 의존성과는 다르게 남녀 차이가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147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컴퓨터 오류로 실험을 중단한 3명, 외국인 1명, 응답 시간이나 응답 오류가 SC-IAT 기준치(Karpinski & Steinman, 2006)를 초과하여 점수화되지 못한 15명, 외현적 의존성 점수가 평균 $\pm 2SD$ 이상인 극단값에 해당하는 11명을 제외한 117명(남자 52명, 여자 65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1.36세($SD = 2.74$)였다. 참가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실험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수강 과목에 대한 크레딧을 지급 받았다.

측정도구

대인관계 의존 척도(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IDI)

외현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로 Hirschfeld 등(1977)이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 김영환과 홍상환(1999)이 번안한 것을 임상심리 전문가에게 문항들을 검토 받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의존성과 관련된 4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매우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선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혼자 결정할 때 매우 힘들어 한다”, “친한 친구를 잃는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럽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산출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0이었다.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로 Beck(1967)이 개발한 Beck Depression Inventory(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증상에 대하여 0에서 3까지의 척도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예: 나는 슬프지 않다(0점), 나는 슬프다(1점), 나는 항상 슬퍼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다(2점), 나는 너무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3점)).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함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Single Category-Implicit Association Test: SC-IAT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C-IAT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절차는 Karpinski와 Steinman (2006)이 제시한 절차를 그대로 준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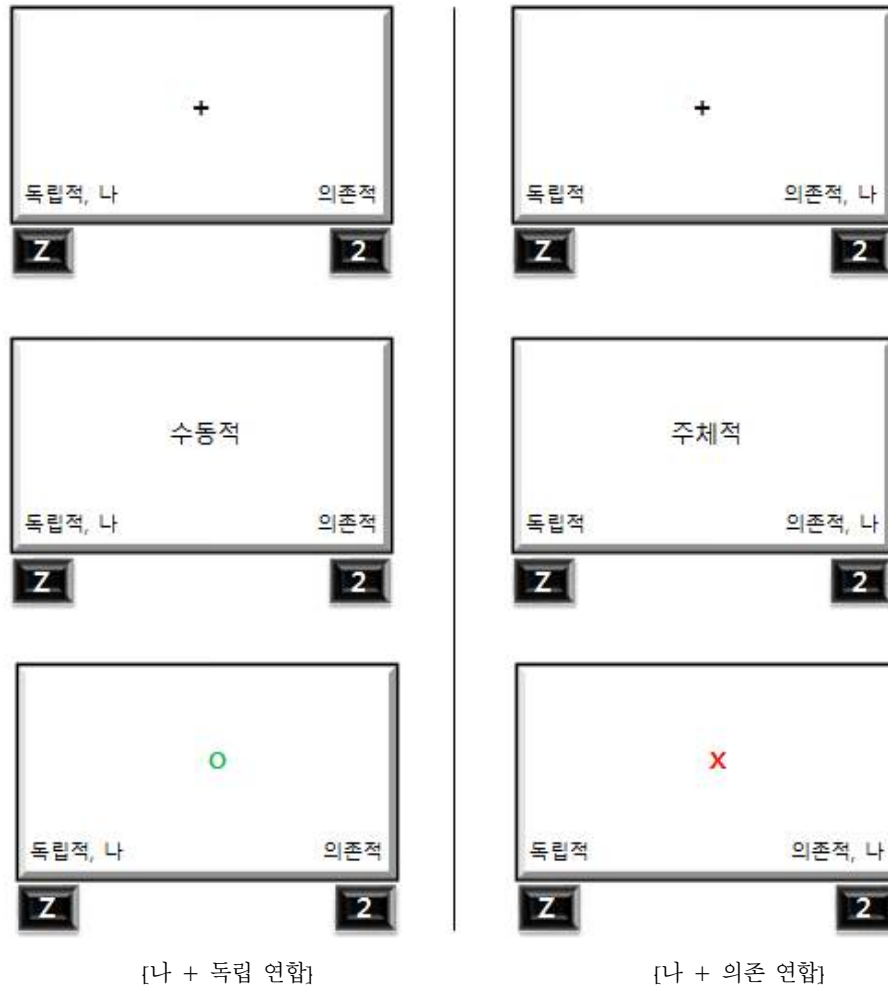
장치. 실험에는 개인용 IBM 컴퓨터가 사용되었으며, MATLAB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극을 제시하고 응답을 수집하였다. 자극은 화면 주사율 75Hz인 17인치 LCD 모니터로 제시되었으며, 참가자와 모니터의 거리는 약 60cm로 설정되었다. 실험 참가자 4-6명이 한 방에서 참가하되, 각자 칸막이로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실험 과제(SC-IAT). 실험 과제의 구성과 순서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단어 자극들은 총 4개의 단계를 통해 제시되었다. 24회의 연습이 선행된 후 72회의 실전이 진행되는 방식의 실험이 두 번 시행되었다. 모니터 중앙에 십자가가 제시된 후 단어 자극은 ‘나’, ‘독립’, ‘의존’과 관련한 단어들 가운데 무선으로 하나씩 제시되었으며, 실험 참가자는 각 단어를 키보드의 ‘Z’(왼 손), 혹은 키보드 숫자판의 ‘2’(오른 손) 키 중 해당하는 키로 반응하되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안내되었다. 반응을 정확하게 하면 중앙에 녹색 “O” 표시가 150ms동안 제시되었으며, 반응이 틀렸을 경우에는 빨간색 “X” 표시가 동일한 시간 동안 제시되었다.

〈표 1〉 암묵적 의존성 측정을 위한 SC-IAT 단계

단계	시행	기능	키 반응	
			좌측(Z)	우측(2)
1a	24	연습	독립+나	의존
2a	72	실전	독립+나	의존
3b	24	연습	독립	의존+나
4b	72	실전	독립	의존+나

자극이 제시된 상태에서 실험 참가자가 1,500ms 동안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빠르게 해주세요”라는 문구가 500ms 동안 제시되었다. 연습 시행인 1단계와 3단계에서는 나, 독립, 의존 관련 단어가 1:1:1 비율로 제시되었다. 실전 시행에서는 응답 편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단어가 같은 비율로 제시되지 않았다. [독립+나] 연합인 2단계에서는 나, 독립, 의존 관련 단어가 7:7:10의 비율로 제시되어 Z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58%, 숫자 2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42%가 되도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의존+나] 연합인 4단계에서는 나, 독립, 의존 관련 단어가 7:10:7의 비율로 제시되어, Z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42%, 숫자 2키로 반응하는 경우가 58%가 되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화면의 예시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실험 과제의 예시

실험에 사용된 단어 선정을 위하여 한국어 유의어 사전(서울대학교, 2009)에서 ‘의존’과 ‘독립’, ‘나’의 동의어와 유의어를 추출하여 학부생과 대학원생 21명이 평가한 후 각각 상위 다섯 개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단어는 다음과 같다: ‘나’ 관련 단어: 자신, 자아, 나의, 자기, 나는; ‘의존적’ 관련 단어: 의존, 의지하는, 기대는, 수동적, 좌지우지; ‘독립적’ 관련 단어: 독립성, 자주적, 주체적, 알아서, 홀로서기.

암묵적 의존성의 점수 산출 역시 Karpinski와 Steinman(2006)이 제시한 과정을 그대로 준수하였다. 각 단계의 첫 네 번의 시도는 제외되었으며, 350ms보다 빠르게 반응하거나 1,500ms보다 늦게 반응한 것, 반응하지 않은 것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반응이 틀렸을 경우 해당 시행의 반응 시간은 해당 단계의 평균 시간 + 400ms로 대체되었다. 전체의 20% 이상 오답일 경우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인의 암묵적 의존성 점수는 2단계의 평균 반응 시간에서 4단계의 평균 반응 시간을 뺀 것을 2단계와 4단계의 정반응 시간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적임을 뜻한다.

진행 절차

본 실험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Department Review Committee)의 연구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실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는 연구진행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실험 절차, 위험성, 참가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참가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이어서 참가자는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 과제에 참여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외현적 의존성 측정을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인 IDI와 우울 측정을 위한 자기보고 설문지 BDI에 컴퓨터로 응답하였다. 이어서 실험의 목적과 가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강 과목 크레딧을 부여 받았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먼저 참가자의 특성과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우울감 등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성별, 그리고 상호작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다중공선성을 줄이기 위해 독립변인을 평균 중심화하여 사용하였으며, 성별은 남자 0, 여자 1로 더미 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호작용을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이때 연속 변인으로 측정되었던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하 집단으로 임의 분류하는 대신 simple slope analysis(Aiken & West, 1991)를 사용하였다. Simple slope analysis는 각 변인의 평균값에서 1SD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변형하여 각 변인의 상하 집단의 양상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power를 높일 수 있는 통계 방법이다.

결 과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남녀 간 연령 차이는 독립 표본 t -검정 결과 유의미하지 않았다, $t(115) = -.40, p > .05$.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우울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2에

성별로 제시하고,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외현적 의존성과 우울 모두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115) = -2.34, p < .05$; $t(115) = -3.68, p < .00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Bornstein, 1995; Bornstein & McLeod, 2016; Shih & Auerbach, 2010). 성 고정관념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 성별의 차이가 적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암묵적 의존성의 경우에도 예상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115) = -2.68, p < .01$.

〈표 2〉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남(<i>N</i> =52)		여(<i>N</i> =65)		<i>t</i>
	<i>M</i>	<i>SD</i>	<i>M</i>	<i>SD</i>	
외현적 의존성(IDI)	51.19	12.33	56.57	12.38	-2.34 *
암묵적 의존성(SC-IAT)	-0.25	0.35	-0.08	0.31	-2.68 **
우울감(BDI)	3.52	3.82	6.65	5.35	-3.68 ***

* $p < .05$, ** $p < .01$, *** $p < .001$.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관관계는 선행연구(Egloff & Schmukle, 2002; McClelland et al., 1989)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의존성의 외현적 영역과 암묵적 영역간의 독립성이 재확인되었다, $r(50) = .07, p > .05$; $r(63) = .17, p > .05$. 외현적 의존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남녀 모두 유의하여 외현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우울하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r(50) = .39, p < .01$; $r(63) = .32, p < .01$. 그러나 암묵적 의존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는 남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r(50) = -.02, p > .05$; $r(63) = .17, p > .05$.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측정방법	남			여		
	1	2	3	1	2	3
1. 외현적 의존성(IDI)		.07	.39**		.17	.32**
2. 암묵적 의존(SC-IAT)			-.02			.17
3. 우울감(BDI)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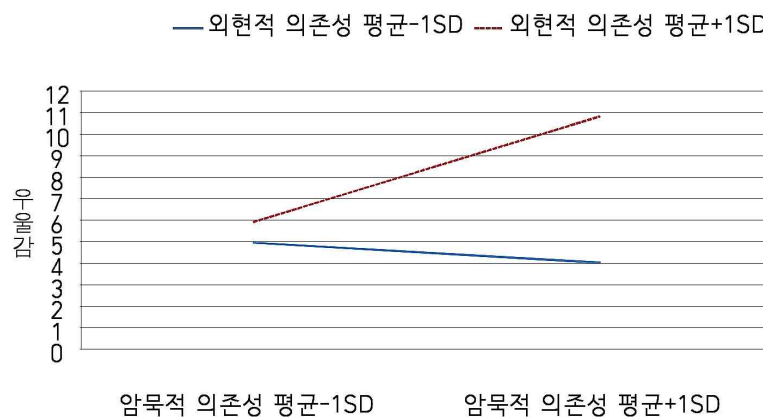
N=117(남 52, 여 65). SC-IAT=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IDI=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BDI: Beck Depression Inventory.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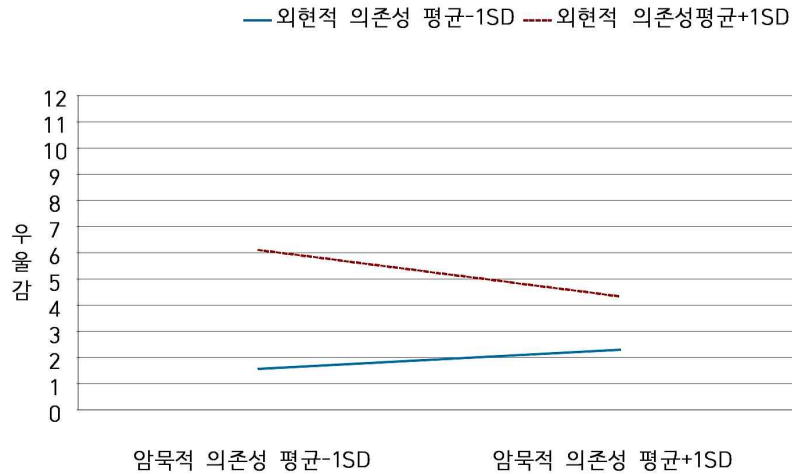
〈표 4〉 우울에 대한 성별,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의 중다회귀분석표

예언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유의확률
	B	표준오차	Beta	t	
(상수)	.72	1.34		.53	.595
성별(G)	2.86	.83	.29	3.47	.001
외현적 의존성(E)	.12	.11	.29	1.02	.309
암묵적 의존성(I)	-4.74	4.00	-.32	-1.19	.238
E X G	.02	.07	.07	.25	.804
I X G	4.00	2.56	.42	1.56	.121
E X I	-.67	.37	-.52	-1.82	.072
E X I X G	.52	.22	.67	2.34	.021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성별, 그리고 각각의 상호작용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현적 의존성, 암묵적 의존성, 성별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beta = .52$, $t(113) = 2.34$, $p < .05$. 즉, 우울을 예측하는 데 있어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simple slope analysis(Aiken & West, 1991)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경우 외현적 의존성이 평균보다 1SD 높을 경우에는 암묵적 의존성이 증가할수록 우울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B = 7.97$, $t(62) = 2.41$, $p < .05$. 반면, 외현적 의존성이 평균보다 1SD 낮을 경우에는 암묵적 의존성은 우울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 = -1.44$, $t(62) = -.57$, p



(그림 4) 암묵적 의존성과 표면적 의존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여성)



(그림 5)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남성)

> .05(그림 4).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외현적 의존성이 평균보다 1SD 높을 때와($B = -2.52, t(49) = -1.04, p > .05$), 평균보다 1SD 낮을 때($B = 1.04, t(49) = 0.52, p > .05$) 모두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않았다(그림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비일관적인 선행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관련 연구에서는 주로 자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하고 암묵적 의존성은 간과한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인지적 연합 측정 방법인 SC-IAT를 사용하여 의존성의 암묵적 영역을 함께 측정하고, 암묵적 의존성이 그동안의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혼재 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SC-IAT를 이용하여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할 경우 자기보고에서 나타나는 남성의 방어적인 보고 편향이 감소될 수 있다고 예상하여 성별을 주요 변인으로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성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여성의 경우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을 때만 유의미하게 우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 둘 중 하나만 높거나 모두 낮을 때는 실제 유의미한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외현적으로 스스로가 의존적이라고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암묵적 의존성이 함께 높은 경우에만 실제로 우울하였으며 암묵적 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는 우울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외현적 의존성은 높지만 암묵적 의존성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인데, 그동안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했던 선행 연구들에서는 외현적/암묵적 영역 간 의존성이 상이한 이 여성들의 존재와 그들의 우울감이 실제로는 낮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이는 암묵적 의존성을 간과한 것이 그동안 의존성과 우울의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과 달리 암묵적 의존성이 우울을 예측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즉, 암묵적 의존성의 수준에 관계없이 외현적 의존성이 높을수록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추후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본 연구에서 암묵적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SC-IAT가 남성의 암묵적 의존성을 민감하게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21명 중 71%가 여성이었다. Ottaway, Hayden과 Oakes(2001)의 연구에 의하면 IAT에 사용된 단어의 친숙함과 사용 빈도는 측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는 의존성이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이라는 점에서 여성이 생각한 의존 관련 단어는 남성이 스스로와 연합하기 쉬운 의존 관련 단어와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본 실험 결과는 의존성이라는 하나의 구성 개념 안에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서로 독립적인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며(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 Nosek, 2001), 향후 의존성의 외현적 영역과 암묵적 영역을 구분하여 측정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외현적 의존성과 암묵적 의존성이 모두 높은 여성만이 유의미하게 우울하다는 연구 결과는 의존성의 외현적/암묵적 영역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외현적 의존성만을 측정하고 우울과의 관계를 보았던 많은 선행 연구가 간과했던 암묵적 의존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SC-IAT로 암묵적인 성격 특질을 측정한 본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성격이나 욕구의 무의식적이고 암묵적 영역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역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지적 연합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성격의 암묵적 영역을 측정한 본 연구는 증거 기반을 중요시 하는 심리학적 연구의 현 흐름에서도 향후 성격 측정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SC-IAT의 측정 방법은 시간이나 비용, 실시 방법 등에서 효용성이 있으며, 이에 병원이나 학교 등의 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와의 비교를 위하여 독립변인인 의존성과 종속변인인 우울감 중 하나는 기존 방식대로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의존성이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의존성을 암묵적 측정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우울감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바람직성이 오염변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 우울감의 측정 역시

암묵적 방식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참가자가 모두 대학생이라는 점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우울감 점수가 정적 편포되었는데, 이 또한 참가자가 일반 대학생인 점과 관련되어 있겠으며, 우울감과 같은 특정 장애와 관련된 임상 연구의 경우 데이터 분포의 정상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보고된다(이영호, 송종용, 1991; 김민영, 김영아, 이진, 김혜진, 오경자, 2014). 이러한 데이터의 정적 편포와 관련하여 변수 변환을 시도하였으나 과도한 정적 편포로 인하여 정규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Field, 2009). 이에 향후 연구 과정에서는 충분한 연구 기간과 다양한 참가자 확보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겠으며,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 김민영, 김영아, 이진, 김혜진, 오경자 (2014). 한국판 ASR(성인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 615-634.
- 김영환, 홍상환 (1999). 대인관계 평가도구의 표준화 연구: 대인관계 문제 검사와 원형척도. **성공논총**, 30, 537-594.
- 박승진, 이훈진, 최혜라 (2011). 성취 지향적. 관계 지향적 우울성향자의 암묵적. 명시적 자존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 305-323.
- 박영숙 (1994). **심리평가의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낱말어휘정보처리연구소 (2009). **(넓은폴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 서울: 낱말 어휘정보처리연구소.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 York, NY, US: Sage Publications.
- Association, A. P.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Beck, A.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s In PJ Clayton & JE Barrett (Eds.),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NY, US: Raven Press.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Philadelphia, PA, U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ck, A. T.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Blatt, S. J. (1974). Levels of object representation in anaclitic and introjective depression.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9, 7-157.
- Blatt, S. J.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113-124. doi: 10.1037/0022-006X.50.1.113
- Blatt, S. J., D'Afflitti, J. P., & Quinlan, 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 383-389. doi: 10.1037/0021-843X.85.4.383
- Blatt, S. J., & Zuroff, D. C.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doi:10.1016/0272-7358(92)90070-o
- Borkenau, P., & Ostendorf, F. (1992). Social desirability scales as moderator and suppressor variabl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6, 199-214. doi:10.1002/per.2410060303
- Bornstein, R. F. (1995). Sex differences in objective and projective dependency tests: A meta-analytic review. *Assessment*, 2, 319-331. doi:10.1177/1073191195002004003
- Bornstein, R. F. (1998). Implicit and self-attributed dependency strivings: differential relationships to laboratory and field measures of help see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778.
- Bornstein, R. F. (2001). A meta-analysis of the dependency - eating-disorders relationship: Strength, specificity, and temporal stabilit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3, 151-162. doi:10.1037/0022-3514.75.3.778
- Bornstein, R. F. (2002). A process dissociation approach to objective-projective test score inter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78, 47-68. doi:10.1207/s15327752jpa7801_04
- Bornstein, R. F. (2005). Interpersonal dependency in child abuse perpetrators and victim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7, 67-76. doi:10.1007/s10862-005-5381-1
- Bornstein, R. F. (2012). Illuminating a neglected clinical issue: Societal costs of interpersonal dependency and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 766-781. doi:10.1002/jclp.21870
- Bornstein, R. F., Bowers, K. S., & Robinson, K. J. (1995). Differential relationships of objective and projective dependency scores to self-reports of interpersonal life events in college student subjec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255-269. doi:10.1207/s15327752jpa6502_3
- Bornstein, R. F., & McLeod, B. A. (2016). Sex, Gender, and Personality Disorders. *Handbook of Gender and Sexuality in Psychological Assessment*, 211.
- Boyce, P., Boyce, P., & Parker. (1991). Personality as a vulnerability factor to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59, 106-114. doi: 10.1192/bjp.159.1.106
- Brown, J. D., & Silberschatz, G. (1989).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depressive attributional styl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87. doi:10.1037/0021-843x.98.2.187
- Campbell, T., Whiffen, V., & Kallos, A. (1994). A factorial validity study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Manuscript under review*.

- Egloff, B., & Schmukle, S. C. (2002). Predictive validity of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for assessing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1441. doi:10.1037/0022-3514.83.6.1441
- Entwisle, D. R. (1972). To dispel fantasies about fantasy-based measures of achievement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77, 377. doi:10.1037/h0020021
- Field, A. (2009).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New York, NY, US: Sage Publications.
- Franche, R. -L., & Dobson, K. (1992). Self-criticism and interpersonal dependency as vulnerability factors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419-435. doi:10.1007/bf01183166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 doi:10.1037/0033-295x.109.1.3
- Greenwald, A. G., & Farnham, S. D. (2000).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measure self-esteem and self-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1022. doi:10.1037/0022-3514.79.6.1022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 doi:10.1037/0022-3514.74.6.1464
- Greenwald, A. G., & Nosek, B. A. (2001). Health of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at age 3. *Zeitschrift für Experimentelle Psychologie*, 48, 85-93.
- Hammen, C., Ellicott, A., & Gitlin, M. (1992). Stressors and sociotropy/autonomy: A longitudinal study of their relationship to the course of bipolar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409-418. doi:10.1007/bf01183165
- Hammen, C., Ellicott, A., Gitlin, M., & Jamison, K. R. (1989). Sociotropy/autonomy and vulnerability to specific life events in patients with unipola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154. doi:10.1037/0021-843x.98.2.154
-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 (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 doi:10.1037/0021-843x.94.3.308
- Hirschfeld, R. M., Klerman, G. L., Chodoff, P., Korchin, S., & Barrett, J. (1976). Dependency-self-esteem-clinical depress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Psychoanalysis*, 4, 373.
- Hirschfeld, R. M., Klerman, G. L., Gouch, H. G., Barrett, J., Korchin, S. J., & Chodoff, P. (1977).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610-618. doi:10.1207/s15327752jpa4106_6
- Karpinski, A., & Steinman, R. B. (2006). The single category implicit association test as a measure of

- implicit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16. doi:10.1037/0022-3514.91.1.16
- Klein, D. N., Harding, K., Taylor, E. B., & Dickstein, S. (1988).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in depression: Evaluation in a clinical pop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399. doi:10.1037/0021-843x.97.4.399
- Leak, G. K., & Parsons, C. J. (2001). The susceptibility of three attachment style measures to 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9, 21-29. doi:10.2224/sbp.2001.29.1.21
- McClelland, D. C., Koestner, R., & Weinberger, J. (1989). How do self-attributed and implicit motives differ? *Psychological Review*, 96, 690. doi:10.1037/0033-295x.96.4.690
- McCrae, R. R., & Costa, P. T. (1983). Social desirability scales: More substance than sty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82. doi:10.1037/0022-006x.51.6.882
- Mischel, W. (1972). Direct versus indirect personality assessment: Evidence and im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doi:10.1037/h0032896
- Mongrain, M., & Zuroff, D. C.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negative life event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toms in dependent and self-critic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447-458. doi:10.1016/0191-8869(94)90071-x
- Murray, H. A. (1943). *Thematic apperception test* (Vol. 1). Cambridge, Mass, US: Harvard University Press.
- Ottaway, S. A., Hayden, D. C., & Oakes, M. A. (2001). Implicit attitudes and racism: Effects of word familiarity and frequency 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Social Cognition*, 19, 97. doi:10.1521/soco.19.2.97.20706
- Perry, J. C., & Körner, A. C. (2011). Impulsive phenomena, the impulsive character (der Triebhafte Charakter) and DSM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5, 586. doi:10.1521/pedi.2011.25.5.586
- Reynolds, W. M. (1982). Development of reliable and valid short forms of the Marlowe 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 119-125.
- Robins, C. J., Ladd,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s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0. doi:10.1007/bf02239408
- Rorschach, H. (1942). *Psychodiagnostics*.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Shih, J. H., & Auerbach, R. P. (2010). Gender and stress generation: An examination of interpersonal predi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3, 332-344. doi:10.1521/ijct.2010.3.4.332
- Stö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 222.
- Whiffen, V. E., & Sasseville, T. M. (1991). Dependency, self-criticism, and recollections of parenting: Sex differences and the role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121. doi:10.1521/jscp.1991.10.2.121
- Wilson, T. D., Lindsey, S., & Schooler, T. Y. (2000). A model of dual attitudes. *Psychological Review*, 107, 101. doi:10.1037/0033-295x.107.1.101
- Zuroff, D. C., Moskowitz, D., Wielgus, M. S., Powers, T. A., & Franko, D. L. (1983). Construct validation of the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scales of the 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7, 226-241. doi:10.1016/0092-6566(83)90033-8

1차원고접수 : 2016. 10. 26
1차심사완료 : 2016. 11. 28
2차원고접수 : 2016. 12. 13
2차심사완료 : 2016. 12. 26
3차원고접수 : 2016. 12. 28
최종게재승인 : 2016. 12. 28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xplicit/Implicit Dependency and Depression

Park Sunhee

Oh Kyung Ja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personality traits and depression has been widely studied in the field of psychology. However, the existing evidence is mixed and often contradictory, obscuring the precise nature of this relationship. Given that the most common method of measuring the construct of dependency has been to administer self-report instruments, it is possible that implicit dependency, another parameter of dependency that is distinct from explicit dependency measured via self-report, is confounding these results. The current study aim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cy and depression by comparing the effect of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Implicit dependency was measured via the Single Category-Implicit Association Test (SC-IAT), a test of implicit personality that has shown to have good validity and reliability in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we examined the effect of gender on this relationship, given the potential role of gender stereotype that may make male participants show lower levels of dependency when measured through self-report (vs. SC-IAT). Results showed that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indeed had separate and distinct relationships, and the relationships depends on participants' gender. Among female participants, increased explicit dependency predicted depression only when implicit dependency was also elevated. In contrast, explicit dependency predicted depression regardless of the level of implicit dependency in male participa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mplicit and explicit dependency may be separate parameters capturing different aspects of dependent personality traits, further supporting the need to consider the implicit aspect of personality in personality assessment researc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findings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explicit dependency, implicit dependency, depression, IAT, SC-IAT